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Building Information Material Collection Policy in the University Libraries.

情報資料構成 政策決定에 影響을 주는 要因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丁 海 晟
弘益大學校 中央圖書館

目 次

1. 用語와 一般的인 問題
2. 情報資料構成業務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
3. 情報資料의 入受現況
   3.1 奉仕對象者
   3.2 藏書의 規模
   3.3 資料購入豫算
4. 맺음 말

1. 用語와 一般的인 問題

오늘날에 와서 出現한 合理主義 科學主義 思潮에 資本主義가 더해져 현대는 大量生産(Mass Production)의 時代가 되었다. 이에 따라 大衆社會(Mass Society)가 發生하였고 이 대중사회를 움직이는 精神的 枝柱 役割을 하는 매스·미디어의 출현에 따라 情報資料의 生産은 비약적으로 增加하여 現代는 情報의 洪水時代 혹은 情報化時代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情報化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圖書館에서 使用하던 여러 用語들에 대한 變化는 時代思潮에 맞는 처사라고 보겠다.

70年代에 들어와 「圖書館學」「司書」 등의 用語에 대한 改稱問題는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提起된 바[1]있고 또 圖書館學科에서 指導하고 있는 敎科目名稱에 대한 改稱도 論議된 바[2]있다.

정필모씨가 "圖書館學은 本質的으로 情報工學이며 이를 情報工學으로 體系化하자면 現行의 敎科目 名稱과 …상당히 修正해야 한다[3]고 말했듯이 圖書館學을 實際로 應用하고 發展시키는 데 原動力이 되는 圖書館內의 各 分野의 業務에 대한 名稱의 變化는 圖書館이 情報化時代의 要求에 副應하는 일이라는 論理가 成立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使用해 오던 수서업무, 도서선택업무 등의 용어를 情報資料構成業務로 使用키로 한다.

收書業務 즉 情報資料構成業務라고 하면 도서, 잡지 및 다른 資料(非圖書資料)를 구입, 기증, 交換 등을 通하여 蒐集하는 業務[4]라고 定義될 수 있지만 오늘의 槪念으로 보면 大學이 硏究機能을 修行해 나가는데 必要한 모든 情報資料를 여러 과정을 通하여 蒐集하여 硏究機能을 支援할 수 있도록하는 業務라고 볼 수 있다.

國家와 人類社會의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廣範圍하고 精密한 應用方法을 敎授, 硏究하여 人格을 도야하는데 大學의 目的이 있다면 大學圖書館은 위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敎授, 學生의 硏究 및 調査活動을 支援함으로써 大學敎育에 積極 參與하는 基本的인 敎育施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硏究機能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이 大學의 核心役割을 한다면, 大學圖書館의 모든 業務 중 심장의 역할을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對讀者 奉仕, 資料의 整理 등도 重要한 業務이겠지만 最近 知識源이 急速하게 確大되고 거듭 深化되어 情報化時代의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은 無限히 增加해 가고 發生되는 모든 情報를 신속 정확하게 入受하고 처리, 보존, 傳達하는 機能을 修行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情報源을 찾아 入受하는 情報資料構成業務를 大學圖書館의 심장업무라고 할 수 있다. 大學圖書館이 제대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修行하기 위해서는 情報資料를 體系있게 蒐集, 入受, 構成하여 利用되도록 提供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資料構成 業務란 그 圖書館의 質的인 評價를 하는 尺度인 圖書館의 모든 情報資料를 構成해 나가는 것으로, 대개 선정회의, 구입자료의 준비, 구입이 결정된 情報源의 주문사무, 기증 및 교환자료의 처치, 不用情報資料의 除去, 복본조사[5] 등을 修行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들이 위의 業務의 重要性을 무시한 것인지 行政的으로 규제되어 있는 大學設置基準令의 시설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는 때문인지, 또는 도서관의 예산을——그것이 많든 적든——공식적인 業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값싸고 구하기 쉬운 덤—핑류의 자료를 구입하여 장서수 만을 증가시키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質的으로 우수한 資料의 選擇如不나 不用資料의 除去, 기증, 교환자료의 무조건 입수 등 전체 장서에 많은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자료의 조직과 관리와 봉사에까지 많은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다.[6]

따라서 本稿는 20餘年이나 近代的인 意味의 圖書館으로 成長해 온 大學圖書館의 情報資料構成業務가 終來의 量的인 增加에만 매달리든 것에서 벗어나 確固한 情報資料構成政策을 마련하여 質的으로 우수한 資料構成을 하는 데 影響을 미치는 諸 要因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綜合大學校를 中心으로 資料增加數와 各 要因과의 相關關係를 分析 檢討하여 現況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大學圖書館에서 情報資料構成을 爲한 基本政策을 決定하는데 資料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本稿는 作成된 것이다.

2. 情報資料構成業務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

大學圖書館에서 情報資料源의 構成에 있어서 大學人口의 急增과 그 構成員의 多樣化, 이에 따르는 情報資料의 廣範圍한 擴張, 새로운 學問領域의 發展과 各種言語 해독력의 必要性 增大, 그리고 圖書館에 資料費와 奉仕費用의 增加 등의 必要로 몹시 복잡한 現實에 있다. 이런 여건하에서 量的인 資料의 構成과 質的인 面에서 우수한 資料를 構成하여 大學의 敎育的 要求를 잘 反映하기 위해서는 情報資料의 入受를 위한 充分한 硏究를 한 후에 합리적인 原則과 計劃을 規制할 수 있는 政策決定의 確立이 必要하다.

安永柱씨는 政策決定에 根本的으로 고려해야 할 要因[7]을

첫째, 그 大學의 目的에 基礎를 둔 圖書館의 具體的인 目標를 明白히 理解하고 認識하여야 하는 것

둘째, 大學의 現在와 未來의 敎育과 硏究計劃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있는 것

셋째, 圖書館 藏書의 現況과 그 實態를 正確하게 파악하기 위한 藏書評價

넷째, 資料費豫算

이라고 하고 있으며, ACRL(Associatie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 Committee는 그 要因[8]들을

1) 敎科課程의 範圍와 性格
2) 大學院 課程의 課程數와 性格
3) 敎授方法
4) 正規 및 校外 學生數를 합친 學部와 大學院의 學生數
5) 그 地域에 있는 硏究圖書館의 利用으로도 쉽게 滿足할 수 없는 보다 專門的인 資料에 대한 敎授들의 要求를 들고 있다.

한편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를 쓴 Gelfand[9]는

1) 大學의 規模와 敎授의 地理的 位置
2) 學生數
3) 現在 藏書의 性格과 相互協定을 통한 他圖書館의 資料利用性
4) 大學敎科課程과 敎授硏究의 性格
5) 特定機關의 敎授硏究의 特性
6) 大學의 장래 發展計劃
7) 財政的 지원의 정도

등이 大學圖書館의 情報資料構成政策을 決定하는 데 檢討되어야 할 要因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Lyle씨는 政策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을

1) 大學의 규모
2) 大學의 特性
3) 敎科 課程의 特性
4) 도서관 장서의 규모
5) 도서관 藏書의 適切性
6) 資料購入費

등이 政策決定에 앞서 檢討되어야 할 要因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學者들이 비슷한 要因[10]들을 提示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를 綜合해 보건데 大學圖書館의 情報資料構成政策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은

1) 學生과 敎授의 數
2) 大學의 目的
3) 敎科課程
4) 藏書의 規摸
5) 資料費 豫算

등이라고 볼 수 있다.

學生과 敎授는 情報資料의 利用者들로써 이들의 要求는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資料構成政策에는 이들의 要求가 充分히 反映될 수 있어야 하고, 資料의 量을 決定해 주는 學生의 數와 敎授의 數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大學의 目的은 政策決定에 가장 核心的으로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서 大學의 目的에 따라 圖書館의 資料가 敎育目的과 硏究計劃을 效果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政策決定者와 資料構成業務 담당자는 깊이 認識하고 政策에 反映시켜야 한다.

大學의 敎科課程은 大學에 있어 現在와 未來의 敎育과 그 大學의 硏究計劃樹立에 基本이 되는 것으로 敎育課程이 採擇하고 있는 敎育課程과 硏究方法에 따라서 資料構成의 方向이 決定되어야 함은 明確한 일이다. 大學에서 새로운 學部나 大學院을 設置하거나 새로운 學科와 敎科課程을 新設할 計劃과 特殊한 硏究計劃이 있다면 이러한 計劃은 반드시 政策決定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서의 규모 역시 政策決定에 影響을 주는 要因이다. 圖書館 장서의 균형과 적절성을 조정하고 참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장서규모 및 내용에 대한 自體評價를 함으로써 資料의 管理와 利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많은 量의 價値를 喪失한 不用圖書를 폐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 政策수립에 큰 역할을 하는 要因이라고 하겠다.

資料費豫算은 무엇보다도 政策決定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要因이다. 앞에서 言及한 모든 要因들을 참작하여 적절한 정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資料費 豫算이 充分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理想的인 資料構成政策일지라도 虛空에 뜨고 마는 結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財政的인 뒷받침을 고려하고 情報資料構成政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情報資料의 構成現況

앞에서 情報資料의 構成政策에 影響을 주는 要因들이 무엇인가를 檢討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大學圖書館들이 위의 要因을 充分히 政策決定에 反映시키고, 資料를 構成하고 있는 圖書館이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의 要因외에도 客觀的인 여러 要因들이 資料構成 政策決定에 影響을 미치겠지만 本稿에서는 各 大學圖書館의 1年間 圖書增加數를 基準으로 하여 學生數(奉仕對象者數), 資料購入豫算, 全體 藏書數와의 關係 등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情報資料構成現況을 把握하여 앞으로의 政策決定에 參考하고자 한다.

다만, 實際로 各 大學校를 直接 訪問하여 調査한 후에 比較 檢討하여야 겠지만 時間的·經濟的 與件의 不足으로 인해 한국도서관통계 1973년판[11]과 문교통계연보 1972년판[12]과 한국교육년감 1973년판[13]에 수록된 통계 및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分析하였음을 밝혀 둔다.

3.1. 奉仕對象者

大學圖書館에서의 奉仕對象者란 學生과 敎授, 그리고 大學內의 硏究機關에 從事하는 硏究員의 數를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표—1> 奉仕對象者 現況

설립별	교별 \ 구별	학과수 (A)	봉사대상자수 (B)	연간 증가수 (C)	C/A (권)	C/B (권)
국립	S 大	88	33,562	18,244	207.3	0.54
	K P 大	38	5,473	8,380	220.5	1.53
	P S 大	41	6,142	6,744	164.4	1.09
	C P 大	33	5,160	2,050	62.1	0.39
	C N 大	39	4,480	4,374	112.1	0.97
	C 大	25	3,087	2,395	95.8	0.78
	소 계	264	57,904	42,187	159.80	0.74
사립	Y 大	45	11,173	20,509	455.7	1.83
	K 大	44	11,000	18,497	420.3	1.68
	E 大	48	9,207	8,802	183.3	0.95
	C A 大	42	7,227	6,633	157,9	0.91
	S K 大	42	5,350	13,085	311.5	2.44
	K K 大	44	5,438	11,341	257.7	2.08
	S M 大	23	4,026	7,378	320.7	1.83
	D 大	39	4,506	3,346	85.7	0.74
	K H 大	39	7,082	11,681	299.5	1.65
	D A 大	40	5,290	5,131	128.2	0.96
	C S 大	33	4,760	3,455	104.6	0.72
	D K 大	23	2,996	2,221	96.5	0.74
	S K 大	15	2,204	7,602	506.8	3.44
	S J 大	22	2,461	7,621	346.4	3.09
	W 大	18	1,950	4,500	250.0	2.30
	H I 大	22	3,229	7,692	349.6	2.38
	I 大	26	5,830	3,197	122.9	0.55
	소 계	524	93,729	135,070	257.7	1.44
총 계		788	151,633	175,257	222.4	1.16

※ C/A : 1학과당 증가수
C/B : 봉사 대상자 1인당 증가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個[14]의 綜合大學校의 總 奉仕對象者의 수는 151,633名이다. 이에 대해 1년간 增加된 情報資料의 增加數는 175,257卷으로 奉仕對象 1人에 對해 平均 1.16卷이 增加되었다. 이를 國立과 私立을 나누어 보면 國立의 경우 0.74卷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고, 私立의 경우에는 1.44卷이 增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71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조사한 1.7卷[15]의 增加에 비해 0.54卷이나 뒤떨어진 實情이다.

한편 1人當 2卷以上의 增加를 보인 大學은 6個校로 26.1%에 不過한 實情이며 CP大學의 경우에는 0.39卷이 증가한 現實이다.

또한 學科當 增加된 狀況을 보면 全體的으로 222.4卷, 國立의 경우 159.8권, 私立의 경우 257.7卷이 各各 增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P大學의 경우 1個 學科 在籍數 100여명의 利用者에게 62卷이 增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CP大學에 比해 SK大學의

경우 506.8卷이 增加되었음은 觀心을 가져 볼 問題이다.

따라서 情報資料 構成政策을 決定하는 最初의 擔當者인 資料構成業務를 취급하는 Librarian은 최근 3年間의 奉仕對象者 및 學科別 增加資料의 現況을 把握해 놓고 政策立案에 임해야 할 것이다.

3.2. 藏書의 規模

<表—2>에서는 전체 藏書에 規模에 對해 年間增加量이 어느 정도이며 學科當資料의 數와 學生1人當 몇 권의 資料를 갖고 있는가를 分析해 보았다.

여기에서 學科當 資料數와 學生1人當 資料의 數를 分析한 것은 이 機會에 우리가 言及하고 있는 文敎部 施設基準令에 綜合大學校가 어느 程度까지 滿足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表—2> 藏 書 現 況

설립별	구분 / 교별	학과수 (A)	연간 증가수 (C)	장서수 (D)	C/D ×100 (%)	D/A (권)	D/B (권)
국립	S 大	88	18,244	836,707	2.18	9,508.03	24.93
	KP大	38	8,380	146,177	5.73	3,846.76	26.71
	PS大	41	6,744	122,176	5.52	2,929.90	18.12
	CP大	33	2,050	75,128	2.72	2,276.60	14.56
	CN大	39	4,374	62,859	6.95	1,611.76	14.03
	C 大	25	2,395	54,636	4.38	2,185.44	17.70
	소 계	264	42,187	1,297,683	3.25	4,920	22.41
사립	Y 大	45	20,509	301,344	6.80	6,696.53	26.97
	K 大	44	18,497	335,862	5.50	7,633.22	30.53
	E 大	48	8,802	231,861	3.79	4,830.43	25.18
	CA大	42	6,633	166,446	3.98	3,963.00	23.03
	SK大	42	13,085	173,647	7.53	4,134.45	32.46
	KK大	44	11,341	163,065	6.95	3,706.02	29.99
	SM大	23	7,378	108,120	6.82	4,700.86	26.86
	D 大	39	3,346	148,899	2.24	3,817.92	33.04
	KH大	39	11,681	318,076	3.67	8,155.79	44.91
	DA大	40	5,131	153,507	3.34	3,837.67	29.02
	CS大	33	3,455	162,335	2.12	4,919.24	34.10
	DK大	23	2,221	141,937	1.56	6,171.17	47.38
	SK大	15	7,602	79,230	9.59	5,282.00	35.95
	SJ大	22	7,621	82,850	9.19	3,765.90	33.67
	W 大	18	4,500	51,946	8.66	2,885.88	26.64
	HI大	22	7,692	82,154	9.36	3,734.27	25.44
	I 大	26	3,197	70,624	4.52	2,716.30	12.11
	소 계	524	135,070	3,152,663	4.28	6,016	33.64
총 계		788	175,274	4,450,346	3.93	5,647	29.35

※ C/D : 총 장서수에 대한 증가비
D/A : 학과당 장서수 D/B : 학생 1인당 장서수

72年 1年間 增加된 資料의 數는 全體 藏書에 對해 3.93%였다. 國立의 경우에는 3.25% 增加되었고 私立의 경우 4.28% 增加되었다. 私立인 SK大學의 경우 9.59%의 증가를 보인데 반해 國立의 S大學이 2.18%의 增加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 하다.

8.5%이상 增加를 보인 4個大學의 경우에는 最近 綜合大學校로 昇格됨에 따른 全體的인 基本藏書의 構成에 많은 力量을 기울이고 있다고 判斷된다. 또한 이들 大學들은 大學의 心藏部인 圖書館의 發展을 위해 汎大學的으로 技援을 하고 있는 것으로 筆者는 알고 있다.

그러나 年間增加現況이 높다고 그 圖書館의 藏書構成이 바람직하게 되어 있는지는 確認하지 못하였지만 適切한 藏書의 評價가 있은 다음에 고른 增加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大統領令으로 公布된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3項에 보면 "도서는 學生 1人當 30卷 以上으로 하되 학과당 5,000卷 以上과…"[16]라고 學科當 圖書基準數가 명시되어 있다. Clapp과 Jardan이 조사한 "4年制 大學圖書館 장서량의 최저 기준량의 평가공식[17]에 適用시킨 우리 大學의 장서량에는 못 미치는 基準이지만 위의 基準도 달성하지 못한 大學이 17個校로 73.9%나 되고 있는 實情이다. 平均으로 보면 私立大學과 全體的인 것은 6,016권과 5,647卷으로 基準을 上廻하고 있지만 國立의 경우는 S大學을 除外하고는 모두 미달된 實情이다.

한편 學生 1人當 資料數를 分析해 보면 國立의 경우 1人當 22.41卷이고 私立의 경우 1人當 33.64卷이다. 그리고 全體平均 卷數는 29.35卷으로 基準에 약간 미달된 形便이다. 그러나 國立大學의 경우에는 모두 미달된 實情이고 私立의 경우에도 47%인 8개교 만이 基準을 넘고 나머지 大學은 미달된 것을 統計에서 볼 수 있다.

3.3. 資料購入豫算

무엇보다 情報資料構成政策에 큰 影響을 주는 要因이 資料購入豫算이라고 하겠다. 資料購入豫算은 교과과정 상 모든 主題와 大學이 주관하는 모든 연구계획에 適切한 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 만큼 充分하여야 하는 것[18]으로, 만일 이 豫算이 充分히 確保되 있지 못할 경우에는 大學의 敎育計劃 및 硏究計劃을 줄이거나 새로운 과정의 설치를 연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19]이다.

Bowker Annual '71년판에 수록된 미국大學의 資料購入豫算을 보면 1,896個의 大學에 240,311,470弗로 平均 1個大學에 126,746.56$[20]로 우리의 16,976,965원의 3배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美國의 統計는 綜合大學校 이외에 各 大學의 附屬圖書室의 豫算도 포함된 것으로 實際로는 이보다 많은 平均値가 될 것 같다.

<表—3>을 보면 學生 1人當 資料購入費는 國立이 1,858원, 私立이 3,034원, 平均 2,575원이었다. 그런데 SK大學의 8,620원과 CP大學의 251원과는 너무 對照的인 面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에서 言及한 바도 있

<표—3> 資料購入豫算現況

설립별	구분 / 교별	봉사대상자수 (B)	연간증가수 (C)	자료비 (E)	E/C (원)	E/B (원)
국립	S 大	33,562	18,244	49,462,590	2,711	1,473
	K P 大	5,473	8,380	21,000,000	2,505	3,837
	P S 大	6,142	6,744	17,611,000	2,611	2,867
	C P 大	5,160	2,050	1,126,000	549	251
	C N 大	4,480	4,374	8,980,000	2,053	2,004
	C 大	3,087	2,395	7,873,900	3,287	2,584
	소 계	57,904	42,187	106,053,490	2,513	1,858
사립	Y 大	11,173	20,509	43,594,600	2,125	3,901
	K 大	11,100	18,497	45,000,000	2,432	4,090
	E 大	9,207	8,802	20,248,000	2,300	2,199
	C A 大	7,227	6,633	16,710,000	2,519	2,312
	S K 大	5,350	13,085	19,399,322	1,482	3,626
	K K 大	5,438	11,341	12,800,000	1,128	2,353
	S M 大	4,026	7,378	11,543,000	1,564	2,867
	D 大	4,506	3,346	7,800,000	2,331	1,698
	K H 大	7,082	11,681	20,000,000	1,712	2,824
	D A 大	5,290	5,131	9,000,000	1,754	1,701
	C S 大	4,760	3,455	10,000,000	2,894	2,100
	D K 大	2,996	2,221	5,096,000	2,294	1,700
	S K 大	2,204	7,602	19,000,000	564	8,620
	S J 大	2,461	7,621	4,300,000	555	1,427
	W 大	1,950	4,500	2,500,000	3,344	1,282
	H I 大	3,229	7,692	25,725,800	3,659	7,967
	I 大	5,830	3,197	11,700,000	2,166	2,006
	소 계	93,729	135,070	284,416,722	2,105	3,034
총 계		151,633	175,257	390,470,212	2,227	2,575

※ E/C : 1卷當 구입액
E/B : 학생 1人當 豫算

지만 大學當局의 적극적인 배려는 資料購入豫算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圖書 1卷에 대한 購入價格은 平均 2,227원으로 國立 2,513원, 私立 2,105원이다. 現在 國內에서 入受할 수 있는 資料의 價格을 調査한 結果[21] 2,227원으로는 國內發行圖書 2卷 程度, 日書의 경우 1卷 程度, 洋書의 경우 0.5卷 程度 구입할 수 있다는 結論이다. 이를 學生 1人當 豫算額과 比較를 해 보아도 거의 마찬가지인 現象을 볼 수 있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情報資料構成 政策決定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과 우리나라 綜合大學校의 現況을 分析해 보았다. 다만 現況分析에 있어서 大學의 目的과 敎科課程과 連關시켜 分析해 보지 못한 것이 有感이다. 그러나 大學의 目的과 敎科課程은 前章에서 살펴 본 要因들 보다 더욱 重要視하여야 할 要因들이다. 大學의 目的에 따라 圖書館의 모든 政策이 立案될진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는 情報資料構成政策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만한 정보자료구성 정책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實際 資料選擇과 蒐集過程에 따르는 問題는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의 大學圖書館들이 비록 先進諸國에 비해 落後된 감은 있으나 이제 成年期에 접어든 우리의 大學圖書館에서는 圖書館業務 중 가장 核心的인 情報資料構成業務부터 보다 合理的이고 理想的인 運營의 묘를 살려 學生과 敎授들의 硏究活動을 支援할 수 있고, 大學이 要求하는 目標를 充分히 이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우리의 앞에는 밝고 보람찬 來日이 있고 急速度로 成長하는 情報化時代에 대처할 圖書館, 아니 情報센—터로서 變化하는데 本稿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1) 김중한 "도서관 관계전문직과 관계학문의 재규정", **圖書館學**, 第1輯(1970) p.142
이재철. "문헌과학과 문헌사의 소임", **도서관** v.26, N.5 (1971.5) p.3.
이홍구. "도서관학의 문제점", **도협월보** v.11, N.7(1970. 7) p.16~17.
정필모. "한국도서관 교육의 좌표", 도서관 v.26. n.1(1971.1)
——. "學問 名稱으로서의 「文獻科學」에 대한 再考", **도협월보**. v.13. n.9(1972.4) p.15~16.
2) 정필모. "한국 도서관학 교육의 진로", 제12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논문요지, (1973). p.4~7.
3) *ibid.* p.4
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 ALA, 1943) p.2
5) 이춘희 "圖書館 資料의 近代化", **국회도서관보**. v.3, n.2. (1966.3) p.7
6) 安永柱.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資料構成의 發展策", **圖書館學會誌** 第3號(1967) p.49
7) *ibid.* p.50~52
8) 이병목 역. "大學圖書館을 爲한 基準", 도협월보. v.4, n.2(1963.3) p.26
9) M.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 UNESCO, 1968) p.64~65
——. **大學圖書館**, 李炳穆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2) p.82~84.
10) Clapp과 Jordan은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o.26) : 쓴 Ouantitative Criteria for Adequacy of Library Collection에서 학생, 교수, 교과과정, 교수방법, 교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장소의 유연성, 교정의 위치, 지적분위기 등의 要因을 들었고 Fussler는 *The Function of the Library in the Modern College*(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54)에서 교수, 학생, 교과과정, 지적분위기, 학문을 위한 의적인 분위기, 교수방법 등을 들었고 Canada Association of University Library의 대학도서관기준위원회에서는 장서의 규모, 학생수, 석사과정의 범위와 성장, 대학의 발전가능성, 교수의 연구분야, 확장계획, 교과과정 등이 政策 결정에 영향을 주는 要因이라고 하고 있다.
11)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통계**, 1973(서울 : 동협회, 1973) pp.24~31.

12)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72. (서울 : 문교부, 1973)

17) Verner W. Clapp & Robert T. Jordan, *op. cit.* p.374에 다음과 같은 公式을 내놓고 있다.

기 본 장 서	도 서		정기간행물		문서	계
	종수	권수	종수	책수		
1. 학부도서관 以下 제항에 대하여 증가	35,000	42,000	250	3,750	5,000	50,750
2. 교수수(전임)	50	60	1	15	25	100
3. 학 생 (학부, 대학원)	—	10	—	1	1	12
4. 학부—우등생, 자율학습생	10	12	—	—	—	12
5. 학부—전공주제분야	200	240	3	45	50	335
6. 대학원—석사과정	2,000	2,400	10	150	500	3,050
7. 대학원—박사과정	15,000	18,000	100	1,500	5,000	24,500

13) 대한교육연합회. **한국교육연감**, 1973. (서울 : 동회, 1973) p.

14) 統計上에는 韓國의 綜合大學校는 25個校이다. 그러나 H大學校와 YN大學校는 參考하고자 하는 Data가 없어 모든 資料處理에서 除外하였다.

15) 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서울 : 동회, 1971) p.137, 147

16) 大學設置基準令 第11條 3項

18) M.A. Gelfand. *op. cit.* p.84

19) *Loc. cit.*

20)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Trade Information*, 1971. (New York : Bowker, 1971). p.52~53.

21) 筆者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國內書의 경우 전문 및 교양도서 2,250卷의 平均價格이 1,033원이고 日書의 경우 大學에서 利用되는 專門圖書 78卷의 平均價格이 韓貨로 2,788원이었고 洋書의 경우에는 58卷의 平均價格이 5,506원이었다.

第二版 改定版

東西著者記號表

李載喆 지음

著者 李載喆敎授가 十餘年에 걸쳐 完成한 著者記號表의 決定版
完璧한 記號理論을 바탕으로 상세한 解說과 使用例를 붙힌 親切한 案內書
東西洋 모든 著者記號에 共通的으로 適用되는 記號合成의 原理가 定立된

圖書館 必備의 書!!

1973年 11月刊 · 78pp · 25.5×21.5cm · 洋裝本 · 값 2,500원

圖書出版 亞細亞文化社

서울特別市中区奨忠洞 1 街48－24
電話 52－5266 對替 서울1460